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
제 42 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설명문

2026.03.10



현대엘리베이터

목 차

1 대표이사 주주서신

2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3 부의 안건

4 ESG highlights

- 기업지배구조
- 환경 및 사회

1. 대표이사 주주서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승강기산업은 연관산업인 국내 건설경기 둔화와 현재진행형인 글로벌 보호무역을 앞세운 상호관세, 고환율 등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26% 급감한 3 만 5 천여대 수준으로 위축되었습니다. 10 여년 만에 4 만대 벽이 무너질 만큼 영향은 깊었습니다. 시장 위축에 따른 경쟁 심화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건 속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질적 성장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AI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품 고도화와 선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매출액은 1 조 6,071 억원, 영업이익은 1, 508 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19 년 연속 국내 설치시장 1 위, 10 년 연속 유지관리시장 1 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5 월 준공된 세계적 수준의 '현대 아산타워'는 대한민국 엘리베이터 R&D 의 자부심이자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ESG 기준원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역시 경영환경은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주로 이어지는 시차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변수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2026 년 목표를 매출액 1 조 8 천 383 억원, 영업이익 1 천 545 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는 AI 기능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가치 제고와 프리미엄시장 공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저에는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견고한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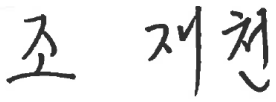
2026 년은 현대엘리베이터가'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오는 상반기 중 승강기 설치공법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고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6 월이면 K-UAM 의 핵심인 'H-PORT 테스트베드'가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대엘리베이터는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재 천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 대표이사 

2.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 조와 당사 정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제 42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 년 03 월 26 일 (목) 오전 9 시

2.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 1 로 128 현대엘리베이터 (복지동 4 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 42 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제 3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1 호 : 사채발행 조건부 위임 관련 조항

  제 3-2 호 :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조항

  제 3-3 호 :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제 3-4 호 : 자구정정 조항
- 제 4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상훈 (사내이사, 임기 3 년, 신규선임)
-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정호 (사외이사, 임기 1 년, 재선임)
- 제 6 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제 7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보수한도액: 50 억원 (2025 년도 한도액: 50 억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 본·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부의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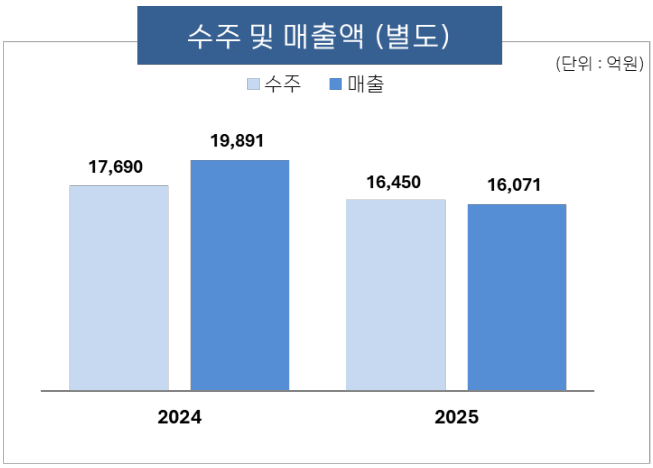
제 1 호 의안: 제 42 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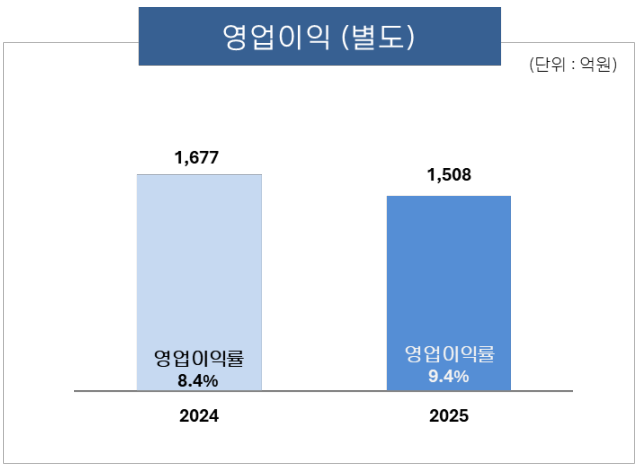
[재무제표 감사 현황]

당사의 최근 3 개년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삼일회계법인/PwC)으로부터 모두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으며, 2025 년 변경된 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도 2025 년 1~3 분기 전 분기에 걸쳐 '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5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오는 2026 년 3 월 18 일(수)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경영 실적]

2025 사업연도는 전방산업인 건설업이 높은 금리 수준과 건설 원재료 가격 상승의 여파로 신축 수요의 뚜렷한 둔화를 보였으며, 리모델링 시장 역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및 프로젝트 지연, 신규설치 물량 감소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2024 년 대비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국내 신규설치/리모델링 설치대수: 2024 년 47,000 대→2025 년 35,000 대) 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수익성 중심의 영업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시장 전반의 둔화와 고수익 중심 전략에 따른 시장점유율 감소가 맞물리면서 수주·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고수익 위주의 영업 기조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전년 8.4%에서 9.4%로 개선되었습니다.





[경영 목표 및 성장 전략]

2026 사업연도에는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기반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주(+23.7%), 매출(+14.4%)의 외형 성장을 추진하며, 영업이익은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는 승강기 핵심사업 역량을 고도화하여 신규설치 및 리모델링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유지관리 부문에서는 AI·IoT·Big Data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MIRI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장동력 측면에서는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자체 개발하여 실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설사 대상 영업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공장에서 약 90%를 사전 제작하여 불량률을 현저히 낮추고, 현장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위험 공정을 제거함으로써 중대재해 제로를 지향하는 차세대 공법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역시 매출 비중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 년 독일에서 개최된 Interlift 승강기 엑스포에 최초 참가하여 유럽,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당사는 2023 년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2024 년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발표를 기점으로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과거 주당 500~800 원 수준이던 현금배당을 2023 년 주당 4,000 원, 2024 년 주당 5,500 원(중간배당 1,500 원, 기말배당 4,000 원)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25 사업연도에는 2 분기와 3 분기 배당으로 각 주당 1,000 원을 지급하였고, 기말배당은 주당 12,010 원을 지급하여 연간 합계 주당 14,010 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친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기말배당은 2025 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해 확보한 3,072 억원을 배당재원으로 활용(감액배당)하는 한편,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경상적 이익의 50% 이상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일회성 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배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액배당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주주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배당의 효과를 한층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주들이 “선배당 후투자”할 수 있게 배당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의 배당투자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기업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실적(요약 연결손익계산서)

(단위: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비 고
	2025.1.1.~12.31.	2024.1.1.~12.31	
매출액	24,674	28,853	
매출원가	18,618	22,980	
매출총이익	6,056	5,873	
판매비와관리비	3,964	3,615	
영업이익	2,092	2,25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505	2,584	
법인세비용(수익)	812	645	
연결당기순이익(손실)	2,693	1,939	

재산상태(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억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비 고
	2025.1.1.~12.31.	2024.1.1.~12.31	
유동자산	18,369	15,362	
비유동자산	18,862	20,375	
자산총계	37,231	35,737	
유동부채	14,540	16,380	
비유동부채	8,247	5,935	
부채총계	22,787	22,315	
자본금	2.122	2,122	
연결자본잉여금	3.093	5,714	
연결기타자본구성요소	(1,288)	(1,288)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82	73	
연결이익잉여금(결손금)	9,513	5,925	
비지배지분	922	876	
자본총계	14,444	13,423	
부채와 자본총계	37,231	35,737	

제 2 호 의안: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당사는 상법 제 461 조의 2 에 의거하여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3,072 억원의 전입에 이어, 금번 주주총회에서도 199 억원을 추가 전입함으로써 비과세 배당 혜택이 적용되는 주주환원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전입 가능 금액】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	자본금의 1.5배	전입 가능금액	전입 금액
3,383 억원	3,184 억원	199 억원	199 억원

제 3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 사채발행 조건부 위임 관련 조항

상법 제 469 조에 따라 사채 발행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채 발행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의 급변에 따라 자금 조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조달금리 등 발행 조건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 년 상법 제 469 조 제 4 항 개정을 통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미 다수의 유가증권 상장사들이 동 규정에 따라 위임 조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사도 이사회가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채 발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관 제 15 조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는 특성상 주식희석 등 주주가치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바, 이번 위임 범위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사채발행 조건부 위임 관련(안)】

조 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 15 조 (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 15 조의 2 및 제 16 조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부 칙 (2026.03.26)	(신 설)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제4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조항

당사는 2025 년 7 월 22 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외이사' 명칭이 1 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 년 7 월 22 일부터 '독립이사'로 변경되는 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법상 명칭 변경은 이사의 역할과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정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정관 변경의 적용 시점은 2026 년 7 월 23 일로 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안)】

조 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 (이사의 원수)	(1) 본 회사의 이사회는 …(중 략) …사외이사로 구성 한다. (2) (생 략) (3) 제 1 항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가 퇴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 회사의 이사회는 …(중 략)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 1 항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가 퇴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외이사의 자격)	제35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중 략) …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35조 (독립이사의 자격) 독립이사는 …(중 략) … 선임하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41조의 2 (이사회내 위원회)	(1) 본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관련법상 필요하거나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 (4) (생 략)	(1) 본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관련법상 필요하거나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제41조의 3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41조의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중 략) …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41조의3(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중 략) …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 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41조의 4 (감사위원회)	(1) (생 략)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4)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4) (현행과 같음)
부 칙 (2026.03.26)	(신 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제35조, 제41조의 2,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4 제2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2025 년 9 월 9 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분리하여 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가 기존 1 명에서 2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동 개정 상법은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정관은 분리 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1 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상법의 시행에 맞춰 2 인까지 분리 선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안)】

조 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41조의 4 (감사위원회)	(신 설)	(5)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2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 (2026.03.26)	(신 설)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제4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자구정정 조항

정관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표준어 맞춤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자구정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자구정정에 따른 문구 정비로, 실질적인 제도·운영상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 자구 정정(안)】

조 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 회와 임시주주총회로하며, 정기주 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 (4) (생 략)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 회와 임시주주총회로하며, 정기주 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의 2 (주식의 소각)	(1) ~ (2) (생 략)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현행과 같음)
부 칙 (2026.03.26)	(신 설)	제1조 (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제 42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 이상훈 (신규선임, 임기 3 년)

상법 제382조 및 회사 정관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상훈	1967.09.27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상훈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지원본부장	2024~현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지원본부장	없음
		2021~2023	현대 GBFMS㈜ 대표이사	
		2020~2024	현대엘리베이터㈜ CFO	
		2019~2020	현대엘리베이터㈜ 중국법인 COO	

※ 후보자 추천사유

이상훈 후보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30 여 년간 재직하며 재무, 해외법인, 회계/경영지원 등 회사의 주요 부문을 폭넓게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본사 CFO와 중국법인 COO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하며 국내외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현재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상훈 후보가 폭넓은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체질 개선을 선도하고, 장기적 비전 실현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제 5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정호 (사외이사, 임기 1 년, 재선임)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호	1970.10.01	사외이사	분리선출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정호	오퍼스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2010~현재	오퍼스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공인회계사)	없음
		2006~2010	우리프라이빗에쿼티㈜ 상무	

※ 후보자 추천사유

김정호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재직 기간 동안 오퍼스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공인회계사)로서 재무·회계 및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당사의 성장 전략 수립과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김정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참고. 이사회 구성(안)

구 분	주주총회 이사 선임 가결 시					
	성 명	성 별	선 임	주요 경력	임 기	비 고
사내이사	조재천	남성	-	現)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前)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영업본부장	'27.03	-
사내이사	**이상훈**	**남성**	**신규선임-**	**現)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지원본부장 前) 현대엘리베이터 CFO**	**'29.03**	**3 년**
기타 비상무이사	임유철	남성	-	現) H&Q KOREA PARTNERS 공동대표이사 前) H&Q Korea Partners 이사/부사장	'26.12	-
사외이사	한희원	남성	-	現) 동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	'27.03	-
사외이사	**김정호**	**남성**	**재선임**	**現) 오퍼스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CPA) 前) 우리프라이빗에쿼티㈜ 상무**	**'27.03**	**1 년**
사외이사	이기화	여성	-	現) 다산회계법인 파트너(CPA)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26.12	-
사외이사	김한수	남성	-	現) 법무법인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28.03	
총 원 : 7 명				이사회 독립률 : 57%		

※이사회 구성원 중 이번 주주총회 이사의 선임(안) 후보 2 인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참고. 現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	구 분	구성원	사외이사 비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김정호 (위원장)	100%
	사외이사	김한수	
	사외이사	이기화	
	사외이사	한희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한희원 (위원장)	67%
	사외이사	김한수	
	사외이사	이기화	
	사외이사	김정호*	
	기타비상무이사	김호진*	
	기타비상무이사	임유철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	김정호* (위원장)	100%
	사외이사	김한수	
	사외이사	한희원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김한수 (위원장)	50%
	사내이사	조재천	
	사외이사	김정호*	
	기타비상무이사	김호진*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	한희원 (위원장)	50%
	사내이사	조재천	
	사외이사	이기화	
	기타비상무이사	임유철	
ESG 위원회	사외이사	이기화 (위원장)	50%
	사내이사	조재천	
	사외이사	김정호*	
	기타비상무이사	임유철	

※임기만료 이사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변경 예정입니다.

참고. 이사회 BSM 구성

(主역량 ● / 副역량 ●)

변경 후						
성 명	구 분	경영 산업	재무 회계	법률 정책	Risk 투자	ESG
조재천	사내	●			●	●
이상훈	사내	●	●	●		
한희원	사외			●	●	●
김정호	사외		●		●	●
이기화	사외		●		●	●
김한수	사외	●	●	●		
임유철	기타비상무	●			●	●

※이사회 구성원 중 이번 주주총회 신규선임 이사 후보는 회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 6 호 의안: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2026 년 3 월 6 일자로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금번 주주총회에서 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당사는 현재 보통주 2,987,323 주(7.64%)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500,000 주(1.28%)는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예정입니다.

잔여 자기주식 2,487,323 주(6.36%)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이 없는 경우, 상법에서 정한 기한 내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개정된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한 것이며, 향후 자기주식의 활용은 관련 규정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구 분	종류와 수	취득 방법
보유 대상	보통주 500,000주	신탁계약에 의한 기취득
처분 대상	보통주 최대 500,000주	신탁계약에 의한 기취득

※당사는 예정된 보유 기간 및 처분 시기(제 42 기 정기주주총회일(2026 년 3 월 26 일)부터 2030 년 12 월 31 일까지)동안 상법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구 분	보유 개시시점	예정된 처분시점 (주1)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보통주 2,987,323주 (신탁계약에 의한 기취득)	보통주 2,487,323주 (신탁계약에 의한 기취득)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36,105,062주	보통주 36,603,062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7.64%	6.36%

(주 1) 처분 대상 수량을 전량 처분한다는 가정이며, 실제 처분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잔여 자기주식 2,487,323 주(6.36%)에 대한 사항은 미반영)

제 7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당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회사의 경영환경, 이사회의 역할, 그리고 책임 수준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사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체계는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 년에 공포된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어 명문화되었으며,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책임 수준이 대폭 강화되고,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환경 변화와 이사회 운영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는 금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이사 보수한도를 50 억 원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강화된 이사진의 법적·제도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역할 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주주가치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년~2025 년 실적, 2026 년 한도(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비 고
승인 한도	60	50	50	50	
집행 실적 (율)	35.8 (59.7%)	8.1 (16.2%)	13.3 (26.6%)	-	

4. ESG Highlights

[2025년 ESG 주요 성과]

(종합) 모빌리티 혁신 기업으로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현대엘리베이터는 ESG 경영의 전사적 내재화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혁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ESG 평가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025년 한국ESG기준원(KCGS) 종합등급 A+를 획득하고 환경(A+)·사회(A+)·지배구조(A)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평가에서도 AA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통해 ESG 기반 경영체계와 기술 혁신 역량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에서도, S&P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CSA)에서 59점을 획득하며 글로벌 주요 경쟁사 대비 경쟁력 있는 ESG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과 경영 안정성에 대한 시장 신뢰로 이어졌으며,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함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을 통해 자본시장 내 기업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환경(E)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과 녹색 기술 혁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7,600k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및 제3자 PPA 활용을 통해 2024년 기준 3,472tCO_2-eq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였으며, 그 결과 Scope 1·2 배출량은 전년 대비 12%, 에너지 사용량은 약 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출장 항목 중심으로 공시하던 Scope 3 배출량 관리 범위를 통근 및 투자 영역까지 확대하고, 해외법인·자회사·계열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장으로 감축 활동을 확대하여, 2025년 중국 상해 스마트캠퍼스에 6,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며 해외 생산 거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 감축을 제품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녹색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반 인버터 대비 최대 64%의 전력 절감이 가능한 전력회생형 구동 제어 기술로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주력 제품 N:EX PLUS에 대한 전과정평가(LCA) 및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설계부터 운행 및 폐기 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저탄소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S) : 안전, 인권 중심 경영 및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현대엘리베이터는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전사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 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임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조직 내 인권 존중 의식을 고양하며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인적가치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충주 본사에 개소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엘리스 카페'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장애인 음악가를 직접 고용한 합창단 '오르락' 운영을 통해 고용 다양성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혈병 어린이 후원(17년 지속), 지역 장학사업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